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대부분 결혼식장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치뤄진다.

결혼식장이란 곳은 결혼식만을 위해서 생긴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신랑 신부들이 여기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기보다는 서양에서 받아들여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린다. 두 사람의 결혼을 서약한 후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기념사진을 찍고 신부는 다음에 결혼할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결혼식은 끝난다. 그리고나서 신랑 신부는 전통혼례옷을 갈아입고 시부모님에게로 인사를 드리러간다. 이때 시부모님께서 인사에 대한 답례로서 밥과 대추를 던져주는데 이것은 다산을 의미한다.

부모님이 던져주신 밥과 대추를 다 먹음으로써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도 있다.

신부친구들이 만들어준 부케바구니를 들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여기에는 과일과 양초와 목욕용품등이 들어있습니다. 여행을 갔다와서 양친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신부의 집에서 1일 머물고 신랑의 집으로 인사를 갑니다.